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 TCP18894-P 주정부 허가 할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스킨케어 김영란 올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한 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음료 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택시 TAXI ☎(310) 350-9540	후코이단 네이쳐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후코이단 네이쳐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백삼위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묵상]

Ὁς ΤΙΣ ΚΑΙ ΠΡΩΤῸΝ
ΤΟΝ ΣΤΑΥΡΟΝ ΑΥΤῸ
ΕΚΟΛΩΘΕΙΤΩ
ΜΟΙ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십자가의 길

재산이나 명예를 잃어 버려 애통,
믿었던 벗에게 배신당하거나 가정에서 오는 불화,
경제적인 갈등에서 찢고 찢기는 상처 등
이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고통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된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와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감수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훌륭한 길이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따르는 고통도 크게 된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으로 구속사업을 이루신 것이다.
사도들에게도 모두 십자가의 길을
용감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신 것이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전주곡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온갖 시련을 참아 이겨내도록 하자.

-오-
petrus3@hanmail.net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한인성당

연중 제 22주일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미사 안내			
화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 요 일	저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오전	8:30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수 요 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아	오전 10: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 요 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오전 10:00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오전 9:30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오후 6:00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후 8:00
주 일	레지오 마리아	오전 중
	아도라떼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성소후원회 (2,3,4,5주일)	오전 9:3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엽/성모/자모/대건)	
	●꾸리아	오후 1:30
	●빈첸시오회	오후 1:00
	3째주- ●요셉회	오후 12:30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어린 시절 라틴어 미사가 그림다

어린 시절에 참례했던 미사는 거의 라틴어로 진행됐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뜻도 모르는 라틴어 미사 경문을 따라 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미사 중에 사제가 “도미누스 보 비스꿈.”하면 신자들은 “엣꿈 스페리뚜 뿌오.”라고 응답했다. 요즈음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다. 그 시절 초등학교생은 물론이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라틴어를 따라 했다. 또 그 시절 본당 신부님의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서라기보다 미사 중에 주례사제가 신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이다. 나는 주례사제 제의 등 쪽에 새겨진 황금색 십자가만 기억이 난다. 지금처럼 사제가 신자들과 마주 보며 올리는 미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1965년부터 도입됐다.

미사도 요즈음보다 20~30여 분은 더 길었던 것 같다. 미사 20여 분 전에 성당에 와서 두꺼운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영성체 후에는 거의 성가를 부르지 않았다. 영성체한 신자들이 침묵 시간을 즐기게 하려는 배려였다. 미사가 끝난 후에도 제자리에 앉아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신자들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걸어서 미사를 보고 가노라면 2시간은 족히 걸렸다.

자매들은 모두 머리에 흰색 미사보를 쓰고 미사에 참례했다. 형제들도 깨끗한 한복을 차려 입고 나왔다. 간혹 미사보를 입고 온 할머니들은 성당 앞줄에 감히 앉지 못하고 뒤쪽에서 미사를 봤다. 앞줄에 앉아서 미사보를 찾다가 “에쿠 미사보를 안 가져왔네.”하며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뒤쪽으로 가던 모친이 생각난다.

마룻바닥 성당이어서 성당 입구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제대 앞쪽부터 줄을 맞춰서 앉았다. 맨발이다 보니 여름에는 개구쟁이들의 심한 발냄새가 코를 찔렀다. 겨울에 마루판 웅이구멍 난 곳에 앉은 날이면 솟구치는 냉기에 몸이 얼얼했다.

요즈음 미사는 그 시절에 비하면 참 편하고 좋다.

사제가 우리말로 봉헌하는 미사는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론도 이해하기 쉽다. 유머가 섞인 강론은 재미도 있다. 장례틀에서 미사를 참례하니 앉았다 일어서기도 좋다. 냉난방 시설이 좋아서 한겨울과 한여름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어린 시절의 불편했던 미사가 그림다.

요즈음 미사보를 쓰지 않은 채 노출 심한 옷차림의 자매들, 아웃도어 차림의 형제들, 미사 시작 전에 들리는 잡담 소리, 미사 끝나기 무섭게 성당 밖으로 나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미사는 거룩한 봉헌행위로 가장 큰 기도이다. 영성체로 내 안에 오신 하느님을 만나는 절대적 시간이다. 좀 더 옷차림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참례했으면 좋겠다.

◆ 김상진 요한 / 언론인

[길을 찾는 그대에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49재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 우선 '49재'라는 용어가 교회에는 없다는 것을 일러드립니다.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 드리는 일은 용이하고 권장하지만 타 종교에서 행하는 '재'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와 유교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인의 정서는 망자에 대한 사모의 정을 날수를 헤아려 기억하고 의미를 두는 일에 익숙합니다. 물론 후손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느님께 봉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49일을 헤아려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죄악입니다. 염라대왕, 10대왕, 지옥중생을 구하는 지장보살,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힘으로 조상의 영혼을 극락으로 모신다는 49재나 천도재는 하느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주고혼에서 온 영가들이 지닌 영가의 악취를 천도재로써 제거한다'는 주장도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매한 일입니다. 모든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써만 구원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한 지옥영혼은 다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은 하느님께서 보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연옥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굳이 날수에 연연하지 말고 자비로운 주님께 꾸준히 기도 드리십시오. 교회 안에 그릇된 인식과 행위를 씻어내는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 영혼과 세상을 구원합니다

◆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는 반박을 했습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반박을 하며 항의했을까요? 베드로의 인간적 생각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 없이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판단이나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길이었습니다.(이사 55,8 참조)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세상 속에서는 고통과 수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만을 쫓아가면 결국 패망하고 만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당장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이나

세속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게 됩니다. 세속의 범주에는 때로는 나 자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속 안에서 쉽지 않고 힘들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 결과는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참다운 행복의 삶이 되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의 결과는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나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하느님께 의지하고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그 언젠가는

최근 어머니를 여읜 이가
매일 미사 드리는 것을 보며
헤어짐을 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잃게 되고,
나 역시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잃었거나 잃게 될 것들보다
나를 잃고 남아있을 이들 생각이 잦습니다.
그럴 때면 그간 서운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애뜻함만 가득해지곤 합니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북 1,2반

공지 사항		연중 제 22주일 제37권 41호(가해)2017년 9월 3일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u>성전 기금을 위한 2</u>		● 장소:이층 Room 3 ● 연락처 : 회장 남 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 LA대교구 다민족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16일(토) 오전 9시30분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LA 대주교 ● 한복을 입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일학교 견진반 수업 안내 ● 대상: 9학년이상 미 견진자 ● 시작 : 9월6일 7시 (견진2반, 담당교사: 써니황) 견진1반 : 마가렛 메리성당에서 등록및 수업진행합니다. ST. Margaret Mary 25511 Eshelman Ave Lomita, 90717 (310)326-9494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cks@gmail.com ☎ (213)700-9399 ◆ 주일학교 / 한국학교 9월10일(주일)부터 개학합니다. ◆성요셉 천주교아버지학교 제 6기 등록안내 ● 일시 : 2017년 9월 10일, 17일, 24일,10월1일 총4회 매주 오후 2시 ● 장소 : 성 라파엘 한인 천주교회 12366 Rosecrans Av. Norwalk, CA 90650 ● 등록비 \$150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 (562)505-807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3일 : *김밥(\$4), 사발면(\$2) (소공동체, 토서구역 봉사) ● 9월10일 : * PV3반 (콩나물 비빔밥 \$ 3) * 주일학교: 치킨까스 (자모회)	
*****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차 헌금이 있습니다 ◆ 백삼위 가족 캠프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시: 9월 3 일(주일) 오전 10 시 30 분 ~ 4 일(월) 10 시 30 분 ● 대상 : 백삼위 한인 성당 교우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잔디 받 ◆ 백삼위 본당의 날(9월 17일) 행사 안내 ● <u>미사 시간 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u> <u>낮 미사 : 10시</u>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부스를 분양합니다. 9월 17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97-7770 ◆ 백삼위 한인성당 성소후원회 모임 안내 ● 일시: 9월 10일 (주일) 9시30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경철호 구자운 김교복 김상기 김옥찬 박종열 서용숙 신순철 양영관 오세원 유보나 윤 철 이근태 이병우 이영석 이영희 이제욱 이현주 이형삼 임한나 장원철 전정일 정동호 최이원 최태훈 최희숙 황인중	성전헌금	강순복 경철호 구자운 김교복 김상기 서용숙 신순철 양영관 오세원 이병우 이영희 이현주 이형삼 장원철 정동호 최이원 최태훈 황인중
	합계:\$5,180		합계 : \$1,980
주일미사헌금 :\$2,047 성당캠프 :\$ 125		감사헌금 : \$100(김범주) 후보광고 :\$ 720	

남가주 소식

-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창립 40주년 기획 골프대회
창립 40주년기념 성당확장프로젝트로 자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샷건방식)를 개최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9월 24일 (주일) 오후1시
●장소 : Royal Vista Golf Club
●문의 : 김영수 사무엘 (562)991-4200
- ◆남가주 한인 M.E.제 79차 첫 주말
●일시 : 9월 23일(토)오후7시~24일 (주일)오후5시
●장소 : 아씨시 피정의집 1519 Woodworth St.San Fernando, CA 91340
●참가비 : 부부당 \$350(숙식포함)
●연락처 : 오승준 미카엘 & 수완 아네스 ☎ (562)714-5901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문의 :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 ◆성서사십주간 하반기 개강
성서사십주간은 성경통독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17년 8월 24일 - 12월 14일(매주 목요일)
오전반: 오전 10시- 12시 /저녁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과정 : 구약 역사서(열왕기) - 시서와 지혜서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컵
●회비 : \$70(교재 별도구입)
●장소 : 남가주 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제 19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시간 - 2017년 9월 10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745 S. Oxford Ave, L.A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 세 사람 \$200)
●주관 - 남가주 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6. 연락처 - 이메일<chungsilhongsil @gmail.com>
전화<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음(선착순 50명)

-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구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 공 동 체 부장	김준 방저거 625-3312		
구 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한길선헤 스콜라스티카 218-7824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김 아네스 (419)309-725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박명순 안나 968-760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1시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	1시